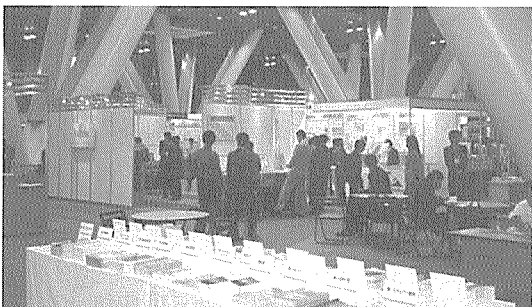


협회행사 보고 ① : 짧지만 긴 여정 제5회 日本圖書館總合展에 다녀와서

일본 도서관협회의 초청을 받고, 우리 협회에서 나와 조원호 전 협회사무총장 그리고 이현주 총무부장 셋이서 인천공항을 출발한 것은 11월 3일(월) 오전이었다. 우리가 비가 내리는 동경의 나리따 공항에 도착하니 조원호 총장의 영애가 반갑게 마중하여 주었다. 다음날 아침부터 일본도서관 총합전에 참가하고, 일본도서관협회 간부들과 만날 일과 또 구체적인 협의사항 등을 꼼꼼히 챙겼다.

이튿날 오전 9시에 서둘러 옛 동경도 청사였던 배 모형의 아름다우면서도 최첨단 기법의 국제포럼전시홀에 도착하여 일본도서관협회의 我妻慈夫(Agatsuma Shigeo) 출판뉴미디어 사업부장, 遠矢勝昭(Katsuaki Tohya) 부장, 그리고 井上學(Inoue Manabu) 前 출판뉴미디어 사업부장 등의 영접을 받았다. 테이프 커팅에 일본관계자와 함께 참여하여 개최한 총합전은 우리 도서관협회의 전국대회 때의 수준과 비슷하거나 조금 규모가 작은 듯 했으나 도서관의 소프트웨어 관계 회사, 각급 도서관의 디지털서비스의 소개와 제품 안내, 출판사, 용품회사, 그리고 자료 보존처리 전문회사 등의 전시와 시연으로 이루어졌다. 우리 일행은 일일이 안내를 받아 관람하고 면밀히 총합전을 살펴보았다. 감사하고 놀라운 사실은 일본도서관협회 부스에 우리협회에서 제작 송부한 「IFLA 2006 Seoul,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 72nd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 and Institutions」 팸플렛(일본어판)을 크게 확대하여 곳곳에 부착했는가 하면,



〈일본도서관총합전 전시회장 모습〉

방문객에게 일일이 팸플렛을 나누어 주며 설명하고 있는 광경이었다.

오후에는 일본도서관협회를 방문하여 이사장 竹内 栴(Takeuchi Satoru) 박사, 국제교류위원장 宮部頼子(Yoriko Miyabe) 교수, 我妻慈夫(Agatsuma Shigeo) 출판뉴미디어 사업부장 등 주요임직원을 만나 IFLA2006서울대회에 일본도서관협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도서관협회도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고, 양국간의 정기적이며 지속적인 협력방안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 교환을 하였다. 5층짜리 아담한 일본도서관협회 건물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우리 일행은 만감이 교차하였고, IFLA 서울대회를 전후하여 우리협회도 어떻게든 독립건물을 가져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저녁은 일본도서관협회의 초대로 조출하지만 아주 세련된 일본 전통음식점에서 화기에 찬 식사를 하였다. 우리 협회 조원호 前 사무총장과 이현주 부장이 얼마나 일본도협의 간부들과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정성을 들였는지를 여실히 느낄 수 있어서 한결 마음이 흐뭇했고, 진실하게 환대해 주는 그 분들에게 커다란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로 일본도서관협회 공식방문이 이루어졌음을 보고 드린다. (■글 : 한상완 부회장, swhan@yonsei.ac.kr)



〈左 안쪽부터(일본측) : 阪田蓉子(Sakata Yohko) 교수, 宮部頼子(Miyabe Yoriko) 교수, 竹内 栴(Takeuchi Satoru) 이사장〉

〈右 안쪽부터(한국측) : 이현주 총무부장, 조재순 사서, 한상완 부회장, 조원호 前 총장〉